

3-4세 유아의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Behaviors and Narrative Representations about Mothers by 3 and 4 year-old Children*

신혜원(Hyewon Shin)¹⁾

이 영(Young Lee)²⁾

ABSTRACT

Subjects were 66 3- to 4-year-old-children of unemployed mothers from upper middle class families. Attachment behaviors were measured with the Preschool Strange Situation(Cassidy and Marvin, 1992) and classified as secure, avoidant, dependent, or disorganized.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by children were obtained by video taped interviews using the MacArthur Story-Stem Battery and coded by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1997) system.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t* test. Results were that children in the secure group showed more positive representations of their mothers, more prosocial story themes, had higher scores in theme coherence and showed more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than those in the insecure group. The attachment behaviors of the 4 groups(A, B, C, D) were closely correlated with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s shown in MSSB.

Key Words : 유아애착행동(children's attachment behavior), 유아애착표상(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 유아낯선상황실험(preschool strange situation).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애착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

의 적응을 설명하는 인간발달 연구에 토대가 되어 왔다. 특히 인간이 유아기가 되면, 걷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자율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롭게 적응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이러한 유아의 발달 특성과

* 이 논문은 2004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전문연구원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Shi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 shinhye@yonsei.ac.kr

생활환경의 변화는 그와 관련된 발달과정의 변화까지 야기하기 때문에(Lamb, 1987; Vaughn, Egeland, Sroufe, & Waters, 1979) 그 시기에 존재하는 발달특성과 관련하여 애착 체계의 구성과 통합을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Bowlby의 애착 이론에 의하면 유아기는 애착 발달 단계 중 4번째 단계로서 애착대상자와 '목적-수정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영아기 때 애착 대상에 대한 '목적-수정 접근 추구'를 형성한 유아들이 애착 대상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논리적으로 일련의 목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들은 증진된 의사소통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전달하고 상대의 목적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와 애착 대상자가 상호 공통의 계획 또는 협력 관계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와 애착 대상자인 어머니와의 분쟁 상황은 공통의 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유아는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애착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애착 특성을 알면, 그 유아를 이해하고 발달과 관련된 유아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iaget에 의하면, 유아들은 표상 능력의 발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2세 정도가 되면 2차 표상이 가능하여 바램, 의도 등을 이해하고 각 상황에 대한 표상을 형성할 수 있고(Perner, 1991),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는 각 상황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표상을 형성하고 바램과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Wellman & Wolley, 1990). 따라서 3세 정도가 되면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Bartsch & Wellman, 1989). 그리고 유아는 자신이 바라는

목표 상황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행동을 시도하면서(Frye, 1991) 목표지향적 행동(goal-directed action)을 할 수 있고, 목표가 달성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김혜리, 2003, 재인용). 따라서 3세 정도가 되면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Wellman & Wolley, 1990). 따라서 유아는 애착 대상자인 어머니와 자신의 바램, 의도,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표상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유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재생, 분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하는데, 이를 Schank와 Abelson(1977)은 스크립트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작은 사건 표상들을 통합하여 장기적-사건 결과와 연결하기도 하고 일반화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사람은 일생에서 특정 사건을 자서전적 기억들로 저장하고, 의미론적 기억을 포괄적인 전체로 저장한다고 한다. 이 두 기억 체계는 다른 저장 메커니즘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Bowlby는 자서전적 기억들은 실제 경험에 의해서만 유도될 수 있는 반면에 의미론적 기억은 다른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한다고 주장하였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Bowlby는 이런 기억 과정에 대한 통합적, 역동적 접근을 '내적실행모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유아가 자신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경험을 사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조작하고 통합하여 유아 자신의 정신 모델을 형성한다. '내적실행모델'은 인간이 사건을 감지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인의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정신의 재현이다(Bowlby, 1982, 1977). 그리고 Bowlby는 '내적실행모델' 개념으로 애착을 설명하였는데, 애착

이란 유아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Bowlby의 통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애착에서 내부 정신적인 표상과 평범한 실제 경험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애착의 안정 기반 행동과 주양육자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은 일상적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며 이후 적응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어머니와 관계가 애착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정신적인 표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90년대 이후 유아기 애착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하여 유아의 내면을 알아보는 다양한 접근들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실증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이다.

애착 이론에 의하면 애착 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애착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Ainsworth와 동료들이 개발한 '낮선상황실험'의 절차가 유아기에도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Cassidy, 1988; Crittenden, 1985; Greenberg & Marvin, 1979; Main, Kaplan, & Cassidy, 1985; Marvin, 1972, 1977; Radke-Yarrow, Cummings, Kuczynski, & Chapman, 1985). 하지만, 그 연구 결과가 낮선상황실험 환경의 격리-재결합시 나타나는 애착 행동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험실 상황에만 국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아기 애착 연구자들은 낮선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변형(Main & Cassidy, 1988)이나 어머니와 함께 협동해서 실행해야 하는 과제(Carmichael-Olson, 1986), 유아가 자신의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과제를(Marvin, 1972, 1977)

통해 다양한 상황을 이용한 유아의 애착 체계와 낮선상황실험에서의 유아 애착 체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애착 체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체계 보다 더 현저히 두드러지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는 애착 체계 이외의 다른 체계들과 혼동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실제 가정환경이든 실험실 상황이든시간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행동은 애착 관계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애착 발달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착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거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Bowlby의 주장에 따라,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유아와 애착 대상인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평가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런 시도들은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이 유아의 애착에 대한 이야기의 주요 특성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Bretherton et al., 1990; Cassidy, 1988; Main et al., 1985; Oppenheim, 1990; Slough & Greenberg, 1990; Shouldice & Stevenson-Hinde, 1992)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인형놀이면접 상황에서 나타난 유아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와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은 이야기완성과제를 실시하고 유아의 이야기를 범주화하는 표준화된 체계로서 "맥아더 이야기완성과제(MacArthur Story Stem Battery : MSSB)"를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유아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을 유아가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용한다. 즉, 인형놀이 면접에서 나타난 유아의 이야기 내용과 감정 반응, 유아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평정한다(Buchsbaum & Emde, 1990; Oppenheim, Emde, & Wamboldt, 1996;

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평가하는 방법은 유아의 표상이 믿음, 바람, 행동 간의 이해에 근거하여 표현된다는 이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세계인 마음을 이해한다는 Wellman의 Mind theory(1990)와 유사하다. 즉, 마음은 믿음과 바람으로 이루어져있고, 믿음은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끼는 것과 같은 지각 경험에 의해 생겨나고, 바람은 갈증이나 배고픔, 고통 등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같은 기본정서에 의해 생겨난다. 이렇게 생겨난 믿음과 바람은 행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Wellman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과 바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표상이며 이 표상의 내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사실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Shatz, Wellman, & Silber, 1983; Wellman & Bartsch, 1988).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아는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 즉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 상태가 바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바람은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나 유아의 행동을 살펴보면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었다(Repacholi & Gopnik, 199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비추어볼 때,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통해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낫선상황실험에서 나타난 애착 행동 특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과 애착 행동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아와 인터뷰한 내용이나 ‘격리불안검사(Separation Anxiety Test)’를 이용하거나(Main et al., 1985; Shouldice & Stevenson-Hinde, 1992; Slough & Greenberg, 1990), 인형놀이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Bretherton et al., 1990; Cassidy, 1988; Oppenheim, 1990). 그리고 유아 애착 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유아낫선상황실험이 아닌 간소화된 격리-재결합 절차를 통해 유아의 애착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그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아 애착 행동 특성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특성이 대체로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고되었다. 즉, 애착 행동에서 안정 애착유형을 형성한 유아가 불안정 애착유형을 형성한 유아보다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할 때 나타난 감정반응에서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냈다(Main et al., 1985; Shouldice & Stevenson-Hinde, 1992; Slough & Greenberg, 1990).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형성한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 이야기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었고, 이야기 주제와 직면했을 때 행동과 감정을 잘 통제하였다(Bretherton et al., 1990, Cassidy, 1988; Oppenheim, 1990).

그러나 유아 애착 행동 특성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특성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동시에 보고된 연구도 있었다. Cassidy (1988)는 연구를 통해 간소화 된 격리-재결합 절차에서 나타난 6세 유아의 애착 행동 유형과 유아의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애착 표상에 근거한 애착 유형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안정 애착 유형과 회피 애착 유형은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비조직적인 애착 유형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Bretherton과 동료들의 중단적 연구에서도(1990) 낫선 상황 실험에서 18개월 영아 애착 행동과 37

개월때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애착 표상 간의 관련성은 높지 않았다. 그리고 37개월때 간소화 된 격리-재결합 상황에서의 애착 행동과 37개월 때 이야기완성과제에서의 애착 표상 간의 상관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 두 연구에서는 (Bretherton et al., 1990; Cassidy, 1988) 애착 행동을 간소화된 격리-재결합 상황에서 평가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소화된 격리-재결합 절차는 단 1회만의 격리-재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실험 절차의 한계로 인해 애착 측정이 까다롭고, 유아의 애착 행동을 범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Main & Cassidy, 1988)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제공되는 절차와 표준화된 평정 체계를 이용하여 애착 행동을 평가하고 어머니에 대한 표상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유아낯선상황실험을 통하여 3-4세 유아 애착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Cassidy와 Marvin(1992)의 실험 절차와 애착 유형의 분류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여 애착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야기완성과제를 통하여 3-4세 유아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분석함에 있어 Bretherton과 MacArthur Group(1990)의 체계화된 절차와 표상 분류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유아낯선상황실험에서의 유아 애착 행동 특성에 의한 애착 유형별로 이야기완성과제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3-4세 유아들의 경우 Bowlby의 내적실행모델이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유아기 애착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애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기에 중요한 문제들인 자아체계, 또래 관계, 정체성, 친밀감 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발달의 정신병리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유아 애착 유형에 따라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이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낯선상황실험에 의해 분류된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낯선상황실험에 의해 분류된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낯선상황실험에 의해 분류된 애착 유형에 따라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유아의 감정반응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총 66명(3세, 4세 유아 각 33명)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66명이었다. 서울 및 신도시에 소재한 유치원을 임의로 선정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어머니중 핵가족이고 비취업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취업모의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시 보이는 행동은 비취업모의 유아가 격리시 보이는 행동과 다를 수 있고(LeVine & Miller, 1990), 유아기의

애착 상호작용은 어머니 이외의 다른 가족들과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Cummings, Zahn-Walzer, & Radke-Yarrow, 1981). 연구 대상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평균 37.3세, 어머니가 34.4세였으며, 30대가 아버지, 어머니 각각 77.3%,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졸 이상이었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아버지 97%, 어머니 90.9%로 상당히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무직(62.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16.7%)과 자영업(16.7%)이 많았다. 가정의 자녀수는 두 명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대상의 62.1%가 두 명 이상의 형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수입은 400만원대(24.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대(22.8%), 500만원대(21.3%)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4/4분기 도시 근로자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25만 3천원이었으며(통계청, 2004), 본 연구 대상 가정의 54.5%가 400만원대 이상이었다. 따라서 부모 학력과 직업 및 소득을 같이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도구

1) 유아낮선상황실험

유아낮선상황실험(Cassidy & Marvin, 1992)은 3분짜리 에피소드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유아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유아가 어떻게 행동을 조직화하는지를 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되는 조건 하에서 유아의 탐색 행동과 애착 행동 간의 균형 및 유아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유아낮선상황실험에서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전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2회 이상 관찰하고 세부적인 기록을 하면서 유아의 행동을 다음의 5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였다. 즉, 애착에 대한 유아의 개인적인 행동 패턴을 규정짓기 위해 '근접성 및 접촉유지(proximity/contact)', '몸의 방향(body orientation)', '부모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과 스타일(speech content/style)', '응시(gaze)', '언어적/비언어적인 정서(affect) 표현'에 근거하여 유아의 전반적인 애착 전략을 분석하여 4개 애착 유형(A, B, C, D) 중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실험의 실시 절차와 애착 유형 분류를 위해 14일간 '유아낮선상황실험 workshop'에 참여하여 Robert S. Marvin박사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자와 유아낮선상황실험 워크샵에 함께 참여하여 훈련을 받은 다른 아동학 전공자인 대학원생과 관찰자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는데, 전체 자료 중에서 15개 사례의 애착 하위 유형 분류에 관한 관찰자간 일치도가 Cohen의 kappa 계수로 .81이 되었다.

2) 이야기완성과제

이야기완성과제는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한 것을 유명미와 이영(2001)이 번안한 것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 14개를 각각 제시한 후 유아가 이야기를 완성하고 유아가 완성한 내용과 유아가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들을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유아의 이야기 주제 및 일관성, 유아의 감정 반응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사에 앞서 본 연구 대상인 3-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예비 실시한 결과, '세 명은 너무

많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선물', '바위 오르기'와 '쿠키 그릇' 이야기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살펴보기에 충분할 만큼 반응이 다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주스를 쏟았어요', '강아지를 찾아서', '엄마의 두통', '뜨거운 국냄비',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사탕을 훔쳤어요', '부모의 여행 출발', '재회', '약장', '소외' 10개 에피소드를 사용하였다.

(1) 어머니에 대한 표상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이야기완성과제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아의 이야기를 요인 분석한 Oppenheim과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표상 범주는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혼욕적 표상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보호하기', '양육하기', '애정표시하기', '도움주기', '용서해주기' 5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표상은 '신체적으로 벌주기', '거친 언어 사용하기', '비전형적인 행동하기' 3개의 하위 항목으로, 혼욕적인 표상은 '혼욕하기' 1개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범주에 따라 각각의 이야기에서 표상 행동들이 있고 없음을 코딩하였고, 표상 점수는 전체 10가지 이야기에서 해당 표상 행동이 코딩된 빈도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 표상 행동 점수는 0~1점의 범위를 지닌다.

(2) 이야기 주제

유아의 이야기에 나타난 주제에 대해서는 Robinson, Mantz-Simmons, Macfie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의 체계(Toth, Cicchetti, Macfie & Emde, 1997)를 이용하여 친사회적 주제와 공격적인 주제 범주로 분석하였다. 친사회적인 주제에는 공감/도움, 보상/죄의식, 제휴, 애

정, 대인간 갈등해결이 포함되었고, 공격적인 주제에는 공격성, 개인적 상해, 비전형적 부정적 행동이 포함되었다. 이야기 완성과제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이용하여 이야기에서 주제에 따라 각각의 이야기에서 주지들이 있고 없음을 코딩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유아의 이야기 주제 점수는 전체 10가지 이야기에서 해당 하위 주제가 코딩된 빈도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 주제 점수는 0~1점의 범위를 지닌다.

(3) 이야기 일관성

유아가 이야기를 얼마나 일관되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Robinson, Mantz-Simmons, Macfie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의 체계(Toth et al., 1997)를 이용하여 일관성이 가장 낮은 0점부터 일관성이 가장 높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평정하였다.

(4) 감정 반응

유아가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내는 감정 반응에 대해서 Robinson, Mantz-Simmons, Macfie,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의 체계(Toth et al., 1997)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유아가 이야기에서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기쁨(joy), 분노(anger), 디스트레스(distress), 근심(concern)은 4점 척도(0-3), 슬픔(sad)은 3점 척도(0-2), 불안(anxiety)은 2점 척도(0-1)로 평정하여 각각 10개 이야기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야기완성과제 평정체계 세미나'에 참여하여 이야기완성과제 개발자인 JoAnn Robinson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실시하였던 이야기완성과제의 실행 절차에 대해 검증 받았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

의 20%(Warren, 2003)인 12개 사례에 대해 본 연구자와 '이야기완성과제 평정체계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한명과 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r=.79$, 이야기 주제는 $r=.86$, 이야기 일관성은 $r=.74$, 감정반응은 $r=.72$ 이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1주일 후에 본 연구자가 다시 분석하여 계산한 관찰자내 신뢰도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r=.85$, 이야기 주제는 $r=.89$, 이야기 일관성은 $r=.92$, 감정반응은 $r=.77$ 이었다.

한편,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편견을 통제하기 위해 유아낮선상황실험에 의한 애착 유형 분류 후 1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이야기완성과제 자료 분석 순서를 애착 유형 분석 순서와는 다른 무선적인 순서로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어머니 66쌍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 실험실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 유아-어머니에게 먼저 낯선 상황 실험을 실시하여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유아는 다른 실험실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여유를 두면서 연구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야기완성과제를 이용한 인형놀이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유아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 검사(K-WIPPSI)(박혜원, 곽금주와 박광배, 2002) 중에서 '언어성 지능' 검사만 실시하였다. 유아의 이야기완성과제의 경우 유아의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Bretherton, et al., 1990; Oppenheim, et al., 1996)와 언어 능력과 상관이 없었다(Waters, Rodrigues, & Ridgeway, 1998)는 결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어

머니는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한 유아가 검사에 참여한 평균 시간은 60~70분 정도였다.

4. 자료 분석

먼저, 유아낮선상황실험 결과에 의해 분류된 애착 유형 집단별로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런데 애착 유형별 집단간의 사례수의 차이가 크고, 특히 의존 유형 집단과 비조직 유형 집단의 사례수가 작아서 통계적인 검증은 실시하지 못하고 각 애착 하위 유형 집단별 평균점수를 전체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각 애착 유형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안정/불안정 애착형성 집단에 따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어머니에 대한 표상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감정 반응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안정/불안정 애착형성 집단간의 사례수가 다르므로 Leven's Test를 실시하여 동변량성을 검증하였고, 동변량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교정된 t 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런 결과를 유아낮선상황실험의 질적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 애착 행동 유형

본 연구 대상 유아가 그들의 어머니에게 보이는 애착 행동 특성을 Cassidy와 Marvin(1992)의 범주 기준에 근거하여 '근접성 및 접촉 유지', '몸의 방향', '대화의 내용과 스타일', '응시', '정서' 측면에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애착

<표 1> 유아낮선상황실험에 의한 애착 유형의 분포

애착 유형	남아	여아	전체
안정(secure) 안 회	정(B) 17(54.8)	25(71.4)	42(63.6)
불안정 의 존(C)	회 피(A) 8(25.8)	5(14.3)	13(19.7)
(insecure) 비조직(D)	의 존(C) 4(12.9)	2(5.7)	6(9.1)
소 계	2(6.5)	3(8.6)	5(7.6)
계	14(45.2)	10(28.6)	24(36.4)
	31(100)	35(100)	66(100)

() 비율

유형별로 보편적인 행동 패턴이 발견되었으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낮선상황실험에 의해 분류된 애착 유형에 따라 어

머니에 대한 표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애착 유형 집단별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2>와 같다.

안정 유형에 속한 유아는 긍정적인 표상 중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양육하고, 자신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도움을 주며 용서해준다는 하위항목이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중에서 어머니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하위 항목은 전체 평균보다 더 낮았다. 회피 유형에 속하는 유아는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와 혼육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낮았고,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았다. 하지만 표상의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중에서 어머니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2> 애착 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안정/불안정 애착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 점수의 차이 검증

표상 범주	하위항목	안정(Secure)		불안정(Insecure)			전체 (N=66)	t
		(B) (n=42)	회피(A) (n=13)	의존(C) (n=6)	비조직(D) (n=5)	소계 (n=24)		
긍정적	보호하기	.03(.69)	.02(.04)	-	.02(.05)	.01(.03)	.03(.06)	1.65
	양육하기	.17(.10)	.08(.07)	.15(.05)	.08(.11)	.10(.08)	.14(.10)	3.17**
	애정표시하기	.16(.13)	.13(.21)	.05(.05)	.02(.04)	.09(.17)	.13(.14)	1.93
	도움주기	.20(.14)	.14(.09)	.25(.14)	.04(.09)	.14(.12)	.18(.14)	1.57
	용서하기	.15(.18)	.11(.14)	.12(.08)	.06(.05)	.10(.11)	.13(.16)	1.53
	계	.71(.34)	.47(.33)	.57(.18)	.22(.13)	.44(.28)	.62(.34)	3.39**
부정적	신체적벌주기	.04(.08)	.02(.06)	-	.04(.05)	.02(.05)	.03(.07)	1.07
	거친언어 사용하기	.11(.11)	.14(.12)	.20(.17)	.22(.19)	.17(.15)	.13(.13)	-2.04*
	비정상적 행동하기	.21(.28)	.55(.29)	.48(.24)	.74(.21)	.57(.27)	.34(.32)	-5.20**
	계	.35(.31)	.70(.33)	.68(.33)	.10(.35)	.75(.35)	.50(.38)	-4.96**
혼육적	혼육하기	.47(.20)	.38(.25)	.45(.23)	.28(.28)	.38(.25)	.43(.22)	1.64

() 표준편차 * $p < .05$ ** $p < .001$

이에 반하여 의존 유형(n=6)과 비조직 유형(n=5)은 해당되는 사례수가 소수이긴 했으나 각 유형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존 유형에 속한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 중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애정을 표시한다는 표상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어머니가 도움을 준다는 표상은 높았으며, 부정적인 표상 중에서 어머니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비정형적인 행동을 한다는 표상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비조직 유형에 속한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중에서 어머니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비정형적인 행동을 한다는 표상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 유형별 집단 간의 사례수의 차이가 크고, 특히 의존 유형 집단(n=6)과 비조직 유형 집단(n=5)의 사례수가 너무 작아서 유형별 집단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회피, 의존, 비조직 유형을 함께 묶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집단으로 명명하고 이를 안정 애착을 형성한 집단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낮선상황실험에서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집단보다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더 많이 하였는데, 주로 자신을 양육해준다고 표상하였으며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어머니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비정형적으로 행동한다고 표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혼육적인 표상에서 안정/불안정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3.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표상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

유아낮선상황실험을 통해 분류된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표상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

〈표 3〉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표상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안정/불안정 애착에 따른 유아의 표상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 점수 차이 검증

이야기 주제	하위항목	안정(Secure)		불안정(Insecure)		전체 (N=66)	t	
		(B) (n=42)	회피(A) (n=13)	의존(C) (n=6)	비조직(D) (n=5)			소계 (n=24)
친사회적 주제	공감/도움	.55(.20)	.42(.19)	.47(.15)	.14(.09)	.37(.20)	.48(.22)	3.48**
	대인간 문제해결	.49(.25)	.35(.28)	.45(.18)	.22(.23)	.35(.25)	.44(.26)	2.30*
	제휴	.19(.17)	.12(.12)	.08(.16)	.12(.08)	.11(.12)	.16(.16)	2.18*
	애정	.22(.16)	.18(.20)	.08(.12)	.06(.13)	.13(.17)	.19(.17)	2.07*
	보상/죄의식	.03(.06)	.05(.08)	-	.04(.09)	.03(.07)	.03(.07)	-.14
계		1.49(.56)	1.11(.48)	1.08(.38)	.58(.47)	.99(.49)	1.31(.58)	3.64**
공격적 주제	공격성	.20(.20)	.31(.24)	.30(.13)	.54(.43)	.35(.27)	.26(.24)	-2.53*
	개인적 상해	.13(.17)	.25(.29)	.27(.15)	.38(.37)	.28(.27)	.19(.22)	-2.43*
	비전형적 부정적반응	.18(.25)	.49(.26)	.42(.21)	.80(.19)	.53(.26)	.31(.31)	-5.36*
계		.52(.47)	1.05(.64)	.98(.41)	1.72(.90)	1.18(.69)	.76(.64)	-4.15**
이야기 일관성		6.33(1.82)	4.58(1.44)	5.13(.87)	3.02(1.32)	4.39(.146)	5.62(1.93)	4.45**

() 표준편차 *p<.05 **p<.001

제와 일관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각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안정 유형에 속한 유아는 친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많이 이야기하였고, 공격적 주제는 전체 평균보다 적게 이야기하였다. 이야기 주제의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친사회적인 주제 중에서도 공감/도움, 대인간 문제 해결, 제휴, 애정에 관한 주제의 이야기가 전체 평균보다 많이 나타났다. 공격적인 주제 중에서는 공격성, 개인적인 상해, 비전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에 관한 주제의 이야기가 전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났다. 회피 유형에 속하는 유아는 친사회적 주제 중에서 공감/도움, 제휴,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하였지만, 대인간 문제해결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 평균보다 적게 하였다. 그리고 공격적인 주제의 이야기는 전체 평균보다 많이 하였다.

반면에 의존과 비조직 유형에 속하는 사례 수는 적었지만, 의존 유형에 속하는 유아는 공감/도움, 대인간 문제해결에 관한 친사회적인 주제가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개인적인 상해, 비전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 등의 공격적인 주제는 전체 평균보다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비조직 유형에 속하는 유아는 공격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한편 이야기 일관성에서는 안정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이 이야기 일관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회피, 의존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은 전체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또한 안정/불안정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친사회적인 주제와 공격적인 주제를 사용하는 빈도에서 안정/불안정 애착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유아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관성에서도 안정/불안정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즉, 안정적 애착 집단이 불안정적 애착 집단보다 공감하거나 도움을 주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타인과 제휴하고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에 대한 친사회적인 주제를 더 많이 이야기하였고, 반면에 타인을 공격하거나 개인적으로 다치는 이야기 그리고 맥락과 상관없는 비전형적이고 이상한 이야기 등 공격적인 주제를 더 적게 이야기 하였다.

한편, 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이 회피, 의존,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들보다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4. 애착 유형에 따른 이야기완성과제에서 유아의 감정반응

유아낯선상황실험을 통해 분류된 애착 유형에 따라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보이는 유아의 감정반응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하였다.

안정 유형에 속한 유아는 ‘기쁨’ 과 ‘슬픔’의 감정반응 점수가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고, 다른 감정반응들은 전체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회피 유형에 속한 유아는 ‘분노’, ‘디스트레스’, ‘근심’, ‘불안’ 등의 감정반응 점수가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의존 유형과 비조직 유형에 속한 유아는 대체로 ‘디스트레스’, ‘근심’, ‘불안’이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그리고 의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분노’의 감정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조직 유형에 속한 유아는 ‘슬픔’의 감정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안정/불안정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안정/불안정 집단에 따라 감정반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낯선상황실험에서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완성할 때 기쁨

〈표 4〉 애착 유형에 따른 이야기완성과제에서 유아의 감정반응 평균과 표준편차 및 안정/불안정 애착에 따른 유아의 감정 반응 점수 차이 검증

감정 반응	안정(Secure) (B) (n=42)	불안정(Insecure)				전체 (N=66)	t
		회피(A) (n=13)	의존(C) (n=6)	비조직(D) (n=5)	소계		
기쁨	8.60(5.28)	2.31(2.39)	3.67(2.94)	1.80(1.30)	2.54(2.38)	6.39(5.31)	6.38**
분노	.90(1.46)	3.84(4.10)	-	7.60(8.23)	3.67(5.24)	1.91(3.59)	-2.53*
디스트레스	3.81(3.32)	8.00(4.16)	7.50(3.89)	10.0(5.14)	8.29(4.22)	5.44(4.24)	-4.77**
근심	8.60(3.68)	10.07(3.12)	13.17(2.99)	8.80(4.92)	10.58(3.72)	9.32(3.79)	-2.10*
슬픔	.64(1.74)	.23(.44)	.17(.41)	-	.17(.38)	.47(1.42)	1.71
불안	5.79(3.11)	7.61(2.60)	8.67(1.97)	9.40(.89)	8.25(2.25)	6.68(3.05)	-3.71**

() 표준편차 * $p < .05$ ** $p < .001$

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반면에,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분노, 디스트레스, 근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였다.

IV. 논 의

1. 애착 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본 연구에서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아낯선상황실험에서 애착 행동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 유아와 어머니의 놀이 및 탐색 시 상호작용 행동의 질적 결과와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하위 항목을 비교해 보았다.

첫째, 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는 협조적이고 친절하게 유아를 도와주었다. 또한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아의 놀이나 탐색이 줄어들고 어머니를 찾기도 하였지만, 어머니의 물건이나 얼굴을 확인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실험실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과 유사하게, 이야기완성과제에서도 안정 유형 유아는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며, 용서해주고, 유아에게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고 표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할 만큼 유사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애착 행동과 애착 표상의 관련성을 비교한 Cassidy(1988)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Cassidy는 6세아를 대상으로 간단한 격리-재결합 절차에 의해 안정, 회피, 비조직의 3가지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형놀이면접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가 인형놀이면접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문제 상황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표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안정 유형으로 분류되는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애착 행동과 이야기완성과제에서의 표상에서 모두 어머니를 안전 기반으로 사용하여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머니의 도

움을 받으며 긴밀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유사한 행동과 표상 패턴을 보인다고 하겠다.

둘째, 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의 개입 없이 주로 혼자서 놀잇감이나 환경을 탐색하였고, 유아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아는 단순히 어머니를 손으로 살짝 건드리는 정도로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머니가 유아를 바라보면 유아는 어머니와의 눈맞춤을 피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상호작용 시 유아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반응하거나, 웃다가 갑자기 침울해 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런 회피 유형 유아들은 표상에서도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는 많았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 맥락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대답하여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비정형적인 행동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회피 유형에 속하는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애착 행동과 이야기완성과정의 애착 표상, 모두에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머니를 안전 기반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assidy(1988)의 연구에서 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가 인형놀이면접에서 유아가 어머니에게 거부되는 상황을 표상하고, 유아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표상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회피 유형의 유아는 스스로가 애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는 독립성이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 결과(Cassidy & Kobak, 1988; Cassidy & Marvin, 1989)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의존 유형에 속한 유아의 경우 실험실 상황에서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엄마가 해 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등 어머니에게 징징거리

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도움을 주면 유아는 어머니를 외면하거나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행동 특징을 보였다. 또한 표상에서도 유아는 어머니가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표상을 하면서 동시에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비정형적인 행동을 한다는 부정적인 표상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애착 행동과 표상에서 나타난 의존 유형의 특성은 자기 확신이 부족하여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애착 전략을 사용하면서도 어머니를 안전 기반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믿지 못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결과처럼 의존 유형의 특성은 행동과 표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볼 때보다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고 해석 된다.

넷째, 비조직 유형의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보다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더 편안해하고, 어머니와 재회시 멍한 표정을 보이거나 혹은 어머니에게 강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비일관된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유아가 과장된 웃음과 억양으로 어머니를 즐겁게 해 주거나 이와는 반대로 유아가 어머니에게 지시적으로 행동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비조직 유형의 표상에서는 주로 어머니에 대해 거친 언어로 이야기하고, 비정형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정적으로 표상하였다.

이러한 비조직 유형의 특성은 유아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착 행동에서 유아는 목표가 불분명하여 비일관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비조직 유형의 유아는 애착 행동과 표상에서 반응이 비일관되고 특이한 패턴이 많아 애착 패턴은 예측하기 힘들고, 유아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며 간혹 유아가 어머니를 통제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가 인형놀이면접에서 어머니에 대해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표상하거나 기괴한 내용의 표상을 많이 하였다는 Cassidy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또한 비조직 유형의 경우 유아는 애착 대상자와 역할 전이 가 일어나 어머니를 보호하거나 혼욕하는 행동으로 어머니를 통제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연관된 것이다(Cassidy & Marvin, 1989; Main & Hesse, 1990).

이처럼 비교적 적은 사례수의 결과이지만, 의존과 비조직 유형의 경우 애착 표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이 부정적인 표상만 두드러졌으나 실험실 상황의 애착 행동 특성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의존, 비조직 애착 유형의 경우에는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각 애착 유형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표상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

애착 행동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 나타난 유아의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간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애착 행동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 유아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 및 스타일의 질적 결과와 이야기과제에서 나타난 유아의 이야기 주제의 하위 항목을 비교해 보았다.

첫째, 안정 유형 유아의 경우는 실험실 환경에서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 내용이 다양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 주제가 바뀌기도 하였고, 서로의 질문과 반응에 대해 수용하고 확장하는 대화스타일이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 시 유아나 어머니가 각각 새로운 제안을 하며 이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전략을 세우기도 하

였다. 이와 같은 애착 행동과 유사하게 이야기완성과제에서도 안정 유형 유아는 공감하거나 도움을 주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타인과 제휴하고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등의 친사회적인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였고, 이야기 구성시 대체로 일관성 있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와 협동적이고 상호교류적인 행동을 나타내었으며 동시에 이야기완성과제 표상에서도 어머니와 문제 해결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이야기 주제를 표상하여 애착 행동과 이야기 주제에 대한 표상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와는 다른 평정 체계를 사용하였지만 애착 행동과 표상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간단한 격리-재결합 절차에 의해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6세아의 경우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경우보다 인형놀이면접에서 어머니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어머니와 의논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Bretherton et al., 1990; Cassidy, 1988; Oppenheim, 1990),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6세아가 인형놀이 면접에서 더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조직하였다(Bretherton et al., 1990; Cassidy, 1988; Oppenheim, 1990; Shouldice & Stevenson-Hinde, 1992; Slough & Greenberg, 1990). 또한 Main과 동료들의 연구(1985)에서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6세아가 격리 상황 그림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격리 경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림에 나타난 격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안정 유형은 애착 행동과 이야기 주제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어머니에 대한 표상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표상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 내용이 주로 놀잇감이나 지금 하고 있는 놀이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었고 대화 패턴은 최소한의 반응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회피 유형의 유아는 이야기완성과제에서 친사회적인 주제의 이야기는 비교적 적게 하였고, 주로 타인을 공격하고, 개인적으로 다치거나 맥락과 관계없는 이상하고 공격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특히 회피 유형의 유아는 이야기완성과제 시 이야기가 아주 짧았고 “모른다”는 대답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유아가 대답하기 곤란한 애착 주제에 대해 반응을 회피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회피 유형의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유아에게 말로 지시하는 경우에 유아는 어머니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어머니가 여러 번 반복하여 지시하여야만 어머니에게 반응하였다. 어머니의 제안을 유아가 거부하거나 유아의 제안을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회피 유형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구성에서도 대인간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와 공감/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평균보다 적게 하였다. 이와 같이 회피 유형의 애착 행동과 애착 표상에서 모두 정보나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와 공유하기를 회피하고 어머니의 제안에 유아는 마지못해 반응하거나 최소한의 협조만 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런 회피 유형의 패턴은 Cassidy와 Berlin (1994)이 주장하듯이 양육자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 유아들이 양육자의 거부적인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애착 욕

구의 표현을 최소화하는 회피 애착 패턴을 발달시키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in 등(1985)은 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격리 상황 그림을 보고 그 상황이 슬픈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회피 유형의 유아는 다른 애착 유형보다 어머니의 대화 내용은 제한적이었고 대화시 유아와 어머니가 서로에 대해 동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사례여서 대표적인 특성으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의존 유형과 비조직 유형의 애착 행동과 이야기 주제의 하위 항목을 비교해 보았다.

셋째, 의존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실험실 환경에서 어머니에게 늘 징징거리고 성가신 요구를 많이 하였고 어머니는 대부분 유아의 요구를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한편 이야기 주제에서도 의존 유형의 유아는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를 제외하고는 친사회적인 주제의 이야기는 비교적 적게 하였고, 이에 비해 타인을 공격하고 개인적으로 다치거나 맥락과 관계없는 이상하고 공격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행동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이야기 주제에서는 좀 더 솔직한 반응으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이를 통해 의존 유형의 유아의 경우 실험실 환경에서 어머니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득하고 유아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실험실 환경이 아닌 일상적인 가정환경이라면 유아의 불만에 대해 어머니가 훈육을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존 유형 유아 특성을 애착 행동과 표상으로 살펴보면, 미성숙한 태도와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는 주로 이를 해결하려고 애쓰나 유아는 이런 어머니의 노력에 비협조적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존 유형의 패턴은 Cassidy와 Berlin(1994)의 주장대로 양육자의 돌봄과 양육자의 지지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려는 유아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실험실 환경에서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어머니에게 명령하듯이 지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조직 유아는 어머니의 지시나 설명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와의 놀이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어머니와 대화시 유아와 어머니가 각각 서로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동문서답식의 대화 패턴이 나타났다. 이런 비조직 유형의 유아는 이야기완성과제에서 주로 타인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개인적으로 다치거나 맥락과 관계없는 이상하고 공격적인 주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야기 구성시 대부분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 비일관된 특성이 나타났다.

Main 등의 연구(1985)에서도 비조직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가 격리 상황에 대한 그림을 보고 대체로 침묵을 지키거나 비합리적이고 특이한 반응을 나타내었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시에는 어머니와 유아가 모두 말이 없거나 서로 어긋난 대화패턴을 보였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조직 애착 유형은 Bowlby(1988)의 설명처럼 어머니와 공동의 애착 목표를 설정하기 못했기 때문에 애착 행동과 표상에서 모두 불분명하고 맥락이나 상황에 관계없는

비합리적이고 특이한 반응을 많이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존 유형과 비조직 유형의 경우 애착 이야기 주제와 일관성에서는 별 차이 없이 공격적인 주제의 이야기가 두드러지고 이야기 구성의 일관성이 적었지만 실험실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이나 스타일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의존, 비조직 애착 유형의 경우에는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3. 애착 유형에 따른 이야기완성과제에서 유아의 감정 반응

유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표상 과정에서 나타난 감정반응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애착 행동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 유아낯선상황실험실에서 나타난 유아의 정서에 대한 질적인 분석과 이야기완성과제시 나타난 유아의 감정반응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실험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놀이할 때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많았고, 어머니와 격리시에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런 안정 유형의 유아는 이야기완성과제시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다른 애착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표현함으로써 실험실에서 나타난 정서와 이야기 표상에서 나타난 감정반응이 모두 일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houldice와 Stevenson-Hinde(1992)는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6세아가 격리 불안 테스트에서 상황에 적합한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eenberg 등의 연구(1992)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애정 표현을

즐거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관성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은 회피 유형이나 의존 유형 또는 비조직 유형에 따라 실험실에서의 행동과 이야기 표상에서 보이는 감정반응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둘째, 회피 유형에 속한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시 몸이 긴장하여 어머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유아의 얼굴 표정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웃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격리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와 재결합시에도 처음 잠깐 분노나 적의감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긴장된 몸짓 이외의 정서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는 분노, 디스트레스, 근심, 불안의 부정적인 정서를 비교적 많이 나타냈다. 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다른 어떤 애착 유형보다 감정 표현을 회피한다고 Shouldice와 Stevenson-Hinde가 보고했듯이 본 연구에서도 회피 유형의 유아는 전반적으로 감정 표현이 적었고,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안정된 애착 유형의 유아는 실험실이나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보여주는 감정 반응에 일관된 유형을 보이지만 회피 유형은 실험실에서는 감정이 절제되어 거의 표출되지 않은 반면 이야기를 구성할 때는 부정적인 정서로 표출되는 등 실험실 상황과 이야기 구성 시 감정반응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의존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와 격리시에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와 재결합시 어머니에게 분노를 많이 표출하였다. 비록 사례 수는 적지만, 이런 의존

유형 유아는 이야기완성과제에서 ‘근심’이 다른 애착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실험실 상황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애착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체로 근심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의존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 어머니와 격리 상황에 대한 그림을 보고 아주 심하게 분노를 표현하였다고 보고한 Shouldice와 Stevenson-Hinde(1002)의 주장과도 일관성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존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실험실 상황과 이야기 구성 시 근심과 분노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는 실험실 상황에서 어머니와 격리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지만 일단 어머니가 떠난 후에는 울음을 금방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에 대해 감정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 격리에 대해 일관된 감정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 앞에서는 과장되게 웃었지만 어머니를 외면한 상황에서 혼자서 한숨짓거나 힘든 표정을 짓는 것이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비일관된 감정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비조직 유형의 유아는 이야기완성과제 시 전반적으로 디스트레스와 불안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비록 사례 수는 적지만 비조직 유형의 유아는 실험실 상황과 이야기 구성시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감정 패턴을 예측하기 힘들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Main 등(1985)이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가 가족사진을 보고 억압된 감정 반응으로 나타내거나 비일관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는 실험실과 이야기완성과제 상황에서 애착 유형별로 각각 독특한 감정 반응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내적실행모델은 감정과 연계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실 상황과 이야기 구성시 감정반응을 모두 고려할 때 각 애착 유형에 따른 감정반응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변별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관한 이야기한다. 또한 유아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명명하기 위해 정서적인 표현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서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애착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을 근거로 애착 유형을 추측해 보는 방법도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실험실 상황에서의 애착 행동과 이야기완성과제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간의 관계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각 애착 유형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실제 행동과 이야기 표상에서 공통된 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 먼저 각 애착 유형별로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안정 유형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행동과 표상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이고 긴밀한 상호 교류적 관계 유형이 나타났다. 반면에 불안정 애착인 회피, 의존, 비조직 유형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호 교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에 부적합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비정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아가 상황이나 맥락에 관계없는 반응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인지이론에서는 방어적 배제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유아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보는 인지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고 인지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내적실행모델에 표상되어 이에

의해 처리된다. 따라서 방어적 배제를 사용하게 되면 유아는 애착 자극에 일관된 반응을 구성하는데 곤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비조직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와 어머니의 경우 낮은 상황 실험에서 어머니는 주로 유아를 바라보기만 하거나 유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따르게 하고 유아가 어머니를 보호하는 행동이나 표상을 하는 등 유아의 욕구보다 어머니의 욕구가 더 우선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Main과 Cassidy(1988)는 유아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유아는 어머니의 요구에 순응하고 어머니에게 적응하기 위해 어머니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고 어머니를 돌보아주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구성하게 되어 어머니와 역할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Bowlby는 이런 방어적 배제의 기원을 유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아의 애착 대상자인 어머니가 유아에게 복잡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처리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서적인 지지나 발판을 제공하지 못하면 유아와 어머니가 공동의 목표 설정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Bowlby, 1988; Bretherton, 1992). 따라서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지면 이런 감정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적인 배제에 의존하게 되어 비일관된 반응을 하거나 상황에 부적합한 행동이나 표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애착 유형별로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표상을 통해 애착 내적 실행 모델을 측정하는 것이 왜 타당한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유아의 이야기 표상에 의해 나타난 결과들은 유아의 내적 실행 모델의 반

영이라기보다는 유아의 가족 배경, 사회적으로 바람직함, 정서적 성향 등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 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해 알아본 유아의 애착 내적 실행 모델은 유아의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구성된 애착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실험실에서는 애착 유형별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 나타난 감정반응이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데 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회피 유형과 비조직 유형의 경우 실험실 상황에서는 무표정하거나 정서 반응이 아주 작은 강도로 나타나므로 유아의 정확한 정서 상태를 구분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야기완성과제 시 나타난 유아의 감정반응에 근거할 때 작은 강도의 정서 반응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반면에,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이야기완성과제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만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실험실에서의 행동이 참고자료가 되었다. 예를 들면, 불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특성으로 유아 표상 반응 중 비일관된 특성에 초점을 두게 된다. 유아의 반응이 이야기 줄거리나 그림에 대해 얼마나 잘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는 반응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비일관된 반응은 유아가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였다는 정보는 제공해주지만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구체적인 애착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의존,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이야기완성과제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거나 ‘몰라요’라고만 대답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평정 시 이런 유아의 반응은 종종 평정에서 제외되

었다. 유아의 이런 반응들은 실험실 상황에서 애착 행동 결과에 근거할 때 보다 정확히 각 애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더욱이 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이야기완성과제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어머니에 대한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애착 표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착 행동과 표상의 결과를 모두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히 애착 유형을 구분하고,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을 좀 더 분명히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 애착 유형을 보다 명료하게 변별하기 위해서는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실험실 상황에서의 행동을 토대로 한 연구나 이야기 구성에 의한 유아의 표상을 이용한 연구가 유아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관련성과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 애착 연구에서는 애착 관계에 대해 영아기의 애착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해온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와 다른 유아기 애착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드물게 유아낯선상황실험을 개발자의 의도대로 충실하게 실시해보고 실험과 함께 표상을 동시에 측정해 봄으로써 앞으로 유아 애착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유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과 행동 문제 및 유아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안정, 회피, 의존, 비조직 애착 유형의 특성들은 애착과 관련된 유아 발달상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을 예측하게 해주거나,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낯선상황실험과 이야기완성과제에 의한 애착 측정이 가정에 서처럼 실제적인 애착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Ainsworth와 동료들이 연구(1978)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환경에서 유아-부모 애착 관계에 대한 충분한 장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실험적 평가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상류층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실험에 응해준 어머니와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유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애착 행동과 표상의 관계를 밝혔으나, 이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안정 유형이 대부분이고 의존 유형과 비조직 유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가 작아서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산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애착 유형별 비교를 위해 통계적 검증을 하지 못하고 각 유형의 평균 점수로 경향성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두 애착 측정 방법의 국내 적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불안정 애착 유형이 발견되기 쉬운 대상을 충분히 포함하는 폭 넓은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환경에 위협한 요소들이 많거나 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유아들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동 문제의 예방적 접근과

임상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 관계에만 초점을 두어 유아 애착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유아 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Lamb, 1987)과 유아는 어린 동생에게 애착 대상이 되기도 한다(Marvin & Stewart, 1990)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애착 관계, 형제간의 애착 관계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혜원 · 광금주 · 박광배(2002).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유영미 · 이 영(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63-74.
- 통계청(2004). [http : //www.nso.go.kr/newscms/s_data/report_view.html](http://www.nso.go.kr/newscms/s_data/report_view.html)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 Erlabum, 60, 946-964.
- Bartsch, K., & Wellman, H. M.(1989). Young children's attribution of action to beliefs and desires. *Child Development*, 60, 946-964.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1988).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 Psychology*, 28, 759-775.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273-308). Chicago Press.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 Emde, R.(1990).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 Buchsbaum, H. K., & Emde, R. N.(1990). Play narratives in 36-month-old children : Early moral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hip.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40, 129-155.
- Carmichael-Olson, H.(1986). Developmental process and outcome in preterm children : A transaction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assidy, J., & Berlin, L. J.(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Cassidy, J., & Kobak, R.(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 300-323).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Cassidy, J., & Marvin, R. S., in collaboration with the MacArthur Working Group on Attachment(1989). *Attachment organization in three-and four-year-olds : Coding guidelin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Virginia an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Cassidy, J., & Marvin, R. S.(1992). *Attachment organization in preschool children : procedures and coding manual : Vol. 5.2*. Unpublished manual.
- Crittenden, P. M.(1985). Maltreated infants :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26(1), 85-96.
- Cummings, e. M., Zahn-Walxer, C., & Radke-Yarrow, M.(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2.
- Frye, D.(1991). The origins of intention in infancy. In D. Frye & C. Moore(Eds.), *Children's theories of mind : Mental states and social understanding*. Hillsdale, NU : Erlbaum.
- Greenberg, M. T., & Marvin, R. S.(1979). Attachment patterns in profoundly deaf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25, 265-279.
- Lamb, M. E.(1987). Predictive implicatio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17-824.
- Levine, R., & Miller, P. M.(1990). Commentary. *Human Development*, 33, 73-80.
-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six :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46.
- Main, M., & Hesse, E.(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 Is frightened and/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161-184). Chicago Press.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Marvin, R. S.(1972). *Attachment and cooperative behavior in two-, three-, and four-year-ol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Marvin, R. S.(1977). An Ethological-cognitive model

- for the attenuation of mother-child attachment behavior. In T. M. Alloway, L. Krames, & P. Piner (Eds.), *Advances in the study of communication and affect : Vol. 3.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pp 25-60). New York : Plenum.
- Marvin & Stewart(1990). A family systems, framework for the study of attachment.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51-86). Chicago Press.
- Oppenheim, D.(1990). Assessing the validity of a doll-play interview for measuring attachment in preschool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 Oppenheim, D.(1997). The attachment doll-play interview for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681-697.
- Oppenheim, D., Emde, R. N., & Wamboldt, F. S. (1996). Associations between 3-year-old's narrative co-constructions with mothers and fathers and their story completions about affective themes.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5*, 150-169.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84-294.
- Perner, J.(1991).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Cambridge, MA. : MIT Press.
- Radke-Yarrow, M., Cummings, E. M., Kuczynski, L., & Chapman, M.(1985). Patterns of attachment in two- and three-year-olds in normal families and families with parental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6*, 884-893.
- Repacholi, B. M., & Gopnik, A.(1997). Early reasoning about desires : evidence from 14-and 18-month 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2-21.
- Schank, R. C., & Abelson, R. P.(1977). *Scripts, plans, goal and understanding*. Hillsdale, N. J. : Erlbaum.
- Shatz, M., Wellman, H. M., & Silber, S.(1983). The acquisition of mental verbs : A systematic investigations of first reference to mental state. *Cognition, 14*, 301-321.
- Shouldice, A., & Stevenson-Hinde, J.(1992). Coping with security distress : The separation anxiety test and attachment classification at preschool 4.5 yea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331-348.
- Slough, N. M., & Greenberg, H. T.(1990). Five-year-old'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from parents :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In I. Bretherton & M. W. Watson(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48). San Francisco : Jossey-Bass.
- Toth, S. L., Cicchetti, D., Macfie, J., & Emde, R. N. (1997).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 in narratives of neglected, physically abused, and sexually abused preschool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781-796.
- Vaughn, B., Egeland, B., Sroufe, L. A., & Waters, E.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mother attachment at 12 and 18 months :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 Waters, H. S., Rodrigues, S. M., & Ridgeway, D.(1998). Cognitive underpinnings of narrative attachment assess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1*, 211-234.
- Wellman, H. M., & Bartsch, K.(1988). Young children's reasoning about beliefs. *Cognition, 30*, 293-277.
- Wellman, H. M.(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 Bradford.
- Wellman, H. M., & Wolley, J.(1990). From simple desire to ordinary beliefs : The development of everyday Psychology. *Cognition, 35*, 245-275.

2005년 8월 29일 투고 : 2005년 11월 3일 채택